

“장마·태풍 다가오는데...” 재해위험 불안에 떠는 사람들

전남, 19곳 복구 중...산사태 위험 165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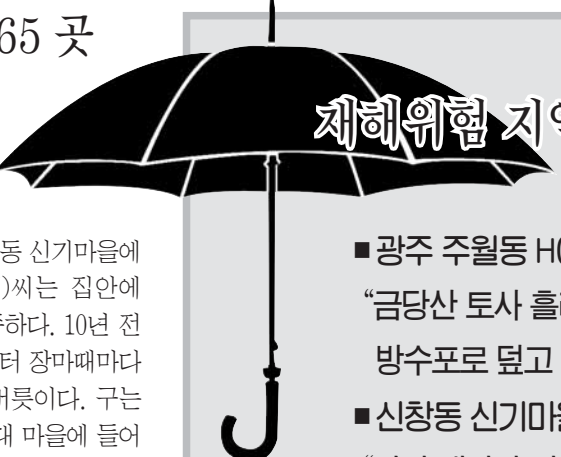
광주, 재해 취약 시설 593개소

“아파트 뒤편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겁이 안와요. 산이 아파트에서 10m도 떨어져 있지 않는데, 우면산 산사태보다 큰 피해가 날 수 밖에 없죠. 흙이 무너지는데 방수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주시 남구 주월동 H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종덕(56)씨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 소식에 걱정이다. 지난해 4월, 아파트 뒤 급경사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을 목격하고 남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방수포만 덮여놓은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기마을에 사는 정수복(여·67)씨는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에 분주하다. 10년 전 수해 피해를 입은 뒤부터 장마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생긴 버릇이다. 구는 수차례 민원에도 저지대 마을에 들어온 물을 빼낼 수 있는 2개의 펌프만을 설치해왔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전남에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붕괴와 침수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구가 200여곳에 달하는데, 전남의 경우 지난해 덴빌·볼라벤의 피해가 재복구되기도 전에 장마를 맞는 곳이



재해위험 지역 주민들의 호소

- 광주 주월동 H아파트 주민
“급경사 토사 흘러내려 남구청 민원 냈더니 방수포로 덮고 1년 넘게 방치만...”
- 신창동 신기마을 70대 노인
“장마 때마다 집 싸게 연례 행사 구청선 고작 펌프 2개 설치해주더라”

19곳에 이른다. 여기에 산사태 위험지구도 전남에만 160곳이 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19일 장마를 앞두고 붕괴

와 침수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구 6곳을 포함해 하천로, 저지대 등 인명피해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파악한 결과 총 593개소가 재해취약지

광주	전남
6	재해취약지구 195
15	인명피해 우려지구 54
140	저수지 2516
3	급경사지(D급이하) 38
17	대규모 공사장 73
16	배수펌프장 118

설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재해취약지구로는 동구 소태천·남계, 북구 장동, 광산구 연산·소촌1·고룡지구 등이 꼽혔다. 하천과 저수지 등 비로 인한 붕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50여억원을 들여 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광산구 고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삼도 뜨지 못하거나, 공사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

는 형편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49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195곳의 재해취약지구 정비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덴빌·볼라벤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진도·익산·창포지구, 영광 염산·두우방조제 등 19곳은 우기 전에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은 크기만 하다.

여기에 주택이나 도로 인접한 곳에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광주 44개소(붕괴취약지역 3개소)이며, 전남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무려 68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사태 우선 예방 지역으로 169개소를 정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산사태 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해 월 2회 이상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임기 끝난 조선행 이사회 정관 변경 “긴급처리 업무 아니다” 법적 타당성 사고 논란

구성원들 강력 반발

임기가 끝난 사립대학교 이사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연임 목적에 임기 종료 5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이사진을 꾸리지 않은 조선행 이사회가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서 법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행 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 9명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방안을 추진 중이며 다음달 15일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9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회의 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근거, 민법의 위임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사들은 후임 이사회 구성 때까지 긴급처리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대 이사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을 통한 이사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관 변경이 이사회의 긴급처리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이사 정원 증원을 임기 만료 이사회가 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조선대 이사들의 정관 변경 시도에 대해 대다수 사학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현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대학의 긴급처리 업무도 아닐 뿐더러 임기 종료까지 임기 만료 이사회의 신분과 직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행정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조선대 교수협의회와 대학 자치기구들은 “이사회의 불법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권한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문화초 '독도학교' 개막 1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문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독립기념관-독도학교' 개막식에서 김진식 독립기념관장 등 참석자들이 '독도 역사 전시'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독도학교는 독도 자연과 역사 전시, 체험 활동, 독도 특강, 영화 상영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묘목 훔쳐 전원주택 꾸민 전직 교감선생님...CCTV에 '덜컹'

자신이 사는 전원주택 정원을 꾸미기 위해 묘목을 훔친 전직 교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직 교감 박모(66)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5시1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담양의 전원주택으로 가던 중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최모(여·45)씨의 묘목 가게 인근 도로에서 멈춰섰다. 가게 앞에 진열된 철쭉·옥향 등 다양한 묘목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체면보다 정원을 가꿀 욕심이 앞섰던 박씨는 최씨의 묘목 가게에서 옥향 10그루·철쭉 10그루 등 10만 원 상당의 묘목을 몰래 훔쳐 담양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가져가 심었다.

묘목이 부족하자 박씨는 나흘 뒤 최씨의 가게 옆 또 다른 묘목 가게에서 철쭉 20그루를 훔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철쭉 등 묘목 140그루(30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갔다. 훔친 묘목은 전원주택 정원에 모두 심었다. 박씨의 범행은 '묘목이 자꾸 없어진다'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의 묘목 가게에서 직선거리로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 분석과 차적조회를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박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직원 허위등록 인건비 쟁건 복지재단 대표 구속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9일,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전남 모 복지재단 대표 최모(68)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의 사위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재단 내 복지시설 회계업무를 맡은 박씨와 함께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억 3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유령 직원’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했다가 다시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00만원 빛에 생활고 재입북 시도 탈북자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탈북자 A(28)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에 홀로 탈북한 뒤 올해 초 광주시 광산구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A씨는 최근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빚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중국을 통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허적, 내 차가 아니었다고?” 상나팔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 몰고 갔던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9)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에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49)씨의 1t 트럭을 자신의 차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

“경찰에서 이씨는 처남에게 하루 전 빌린 차량과 김씨의 차량이 같은 종류인데다, 자신의 열쇠로 문도 열리고 시동까지 걸러 별 생각 없이 운행했을 뿐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심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포도주/와인/맥주)	취화(이문/노조/초등학생)	미취화(어린아동~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6,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Vongole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하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사원 모집

세계적 푸르른 양산,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발보
- 접수처
 - 주 소 : 전남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가온의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